



김남기 단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김남기 단장은 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가 제안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시작된 범국민 릴레이 운동이다. '안녕'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범국민 릴레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보호와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습관 형성을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쓰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올바르게 배출하기 등을 목표로 한다. 진안군 친환경농산물판매센터 사업단 김경배 단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참여한 김남기 단장은 다음 주자로 진안군 산림조합 송문섭 조합장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재동 이사장, 그리고 보령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김정태 단장을 지목했다. 김남기 단장은 "이번 챌린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의 환경역량 강화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시 단체·기업, 녹색정원도시 만들기 동참

익산시는 지난 9일 NH농협 익산시지부와 익산산림조합, 금성케미칼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성금 2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상우)와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은 각 1000만 원, 금성케미칼(대표 김수경)은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나무 식재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농협 익산시지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으로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사랑장학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등에 4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익산산림조합은 2021년부터 불우이웃돕기, 나눔곳간, 코로나19·수해복구 등 성금 8,700만 원을 기부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수경 대표는 팔봉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우 지부장 "녹색정원도시 익산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김수성 조합장은 "시민사회에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참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각각 전했다. 김수경 대표는 "익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성금을 기탁해 기쁘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녹색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무주군 장로교회 안수집사회, 남대천 대청소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에 앞두고 무주군 곳곳이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한 무주장로교회 안수집사회(회장 최락돈) 회원들과 가족 등 20여 명은 지난 4일 남대천 일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청결 운동을 벌였다. 또 이를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설 계획을 밝혀 기대를 주고 있다. 최락돈 회장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 활동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순선수법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반딧불축제를 비롯해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무주에서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작은실천!’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 학생들 대상 환경교육...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일상생활 속 실천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대표 우태만)는 지난 8일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작은실천!' 교육을 진안 세모네모 도서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환경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우태만 대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내가 먼저 나서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느끼고 실천하는데 큰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주물럭 비누로 지구모양을 만들어 보는 환경체험활동을 하고, 북극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발족한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는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민·관·학 거버넌스 단체로, 마을 앞 도랑의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개선해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



각 마을 분리수거한 설치, △농약빈병 분류, △주민·학생 대상 환경교육 및 하천정화, △도랑 안 수증정화 식물 식재 △강 살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이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광복회 등 보존단체장 간담회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장실에서 광복회 등 보존단체장 8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존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존단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존단체장은 "남원시가 보존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경식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존단체의 의견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고엽제전우회 환자 후송 차량 지원 △월남전참전전지회 기념비 건립 등 다양한 보존 복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존가족이 존경받는 보존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사업 호평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하고 올 7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남원시가 장수 축하를 위해 선정된 물품은 이불, 성인용 기저귀, 안마기, 족욕기, 토파, 방짜유기 세트 등 16종으로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으로 선정했으며,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 사업대상 총39명이다. 그 중 현재까지 신청한 어르신은 18명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물품 선택 시 "모두 마음에 들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된다"며 즐거운 기색을 보여 선정된 물품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르신들이 고른 축하물품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이 1인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직접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전달하고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맞는 진정성 있는 시행으로 지역민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사례로 송동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오오0님은 방짜유



기 세트와 여가 안마기, 족욕기를 선택해 선물 받으시며 "이요~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 이름이 새겨진 방글릇을 선물 받기는 처음이네요. 뜻깊게 잘 쓰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존재가 삶의 귀감이 되고 있고, 이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 '의정활동의원선정대상'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지난달 26일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효호대상' 의회부문 '2024우수의정활동의원선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효호대상'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공부문 등에서 평소 총과 효, 봉사, 선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을 물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효호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시상식을 주관하였다. 최한주 의장은 올해 초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장수군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한주 의장은 "장수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에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백운면, 칠월칠석 맞이 마을축제 풍성하게 선보여

진안군 백운면(면장 김보순) 원동창, 두원, 석전 마을은 칠월 칠석인 10일을 맞이해 마을의 다채로운 자원을 활용한 마을 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이어 내려오는 칠월 칠석의 전통적인 행사를 각 마을에 맞는 이야기를 담아 마을축제를 통해 전통을 계승해 나간다는 데에 의미가 더해졌다. 먼저, 원동창마을에서는 '웃음꽃 넘치는 원동창 동구나무 옛 시골 정겨 한바탕'이란 테마를 가지고 예전 백운면소재지 장터를 되살려 보는 시도를 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시 및 판매를 진행했고 과전과 옥수수, 동동주 등의 제철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서울 및 전주 등에서 참석한 어르신 25여 명과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하며 생동감 넘치는 원동창마을축제를 진행했다. 같은 날 백운면 두원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마을의 풍년과 주민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진행했다. 석전마을에서도 광



주리 한가득 옥수수 축제를 진행하며 옥수수 관련 먹거리를 맛볼 수 있었으며, 광주리 전시회도 마련해 외부인 및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 신림면 지사협, 초등생 여름방학 특화사업 추진

고창군 신림면 지사협(민간위원장 송성문, 공공위원장 김태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신림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여름은 활발활발 나들이G~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날 신림면 지사협은 상하농원(파머스 빌리지)에서 초등생 29명에게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및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나들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니는 학교가 달라 같은 면에 살면서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 특화사업은 신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주민위원회에서 협찬해 추진했다. 송성문 민간위원장은 "신림면은 작은 면이지만 초등학교가 세곳(신림초, 가평초, 강학당)으로 같은 면에 살면서도 만날 기회가 없어 이 사업을 기획했다"며 "아이들이 즐겨워하는 모습을 보니 사업 추진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공공위원장은 "출생일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른들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해 아이들이 행복하 신림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왕궁면, 한여름 폭염 위기기구 발굴·지원 나서

왕궁면 행정복지센터가 폭염에 취약한 위기기구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왕궁면은 8월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에 건강관리가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왕궁면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기구에는 공적지원을 우선 지원하고 민간지원 연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이장을 통해 발굴된 한 대상자는 갑작스럽게 왕궁면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살림살이를 갖추지 못하고 전입신고도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익산=이재준 기자



남원 동통사랑 청소년 봉사단, 제빵 나눔 봉사활동

남원시 동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9일 동통사랑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동통사랑 청소년 봉사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눔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올바른 성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10여 명으로 구성된 동통사랑 청소년 봉사단은 봉사활동 교육을 시작으로 빵 100여개를 구워 경로당에 전달하는 제빵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